

11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2009. 12



식품마케팅처 수출정보팀

- 목 차 -

○ 일 본 -----	3
1. 현지시장 동향 - 농림수산물 1월-9월 수출입동향, 가공품 수입동향 2. 수산물 생산동향 3. 수산물 가격동향 - 10,11월 수산물 시황 4. 수산물 수입동향 - 1-9월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 5. 경제동향 - 회복중이나 당분간 어려운 고용 현황 계속될 것	
○ 미 국 -----	15
1. 현지시장포커스 - 연체류 소비동향, 틸라피아의 미래 2. 수산물 어획 및 수입 동향 - 미국 새우시장 잠잠, 유럽 대서양연어생산 증가, 베링해와 아이슬란드 대구 재고 안정세, 알래스카 킹크랩 쿼터 20%축소, 오징어 공급물량, 부족 사태 계속, 미국 FDA 생굴판매금지법 반대에 부딪혀 3. 수산물 가격 동향 - 흰새우, 신선어 및 패조류, 헌츠포인트마켓동향 4. 미국의 수산물 수입동향 - 2009. 9월, 주요품목 5대수입국가, 한국, 수입동향	
○ 중 국 -----	30
1. 3/4분기 어업분야 분석(어업분야 특징, 어업경제 발전전망) 2. 수산물 가격동향(주요 수산시장별 도매가격 동향) 3. 수출입 동향 4. 주요품목 3대 국가별 수출동향 4. 주요품목 3대 국가별 수입동향 5. 한국산 품목별 수입동향	
○ 동남아 -----	39
1. 현지시장포커스(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국가별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관련 동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세안) 3. 국가별 한국산 수산물 수입동향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4. 부록 (FTA 소식) : 중국/ ASEAN FTA, 동아시아 FTA, 인도/ASEAN FTA 진행 현황 5. 해외 단산 필리핀의 홍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 새우 음식 쓰레기로 폐수 정화, 오메가3 첨가로 기능성음료 변질 막아, 세계 창치 추세	

일	본	도쿄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1-9월 수입액

- 1-9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37조3,817억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4조9,965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3.3%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4.2% 감소함

□ 일본의 수산물 수입동향 (1-9월)

- 전체 수입금액은 9,565억 엔으로 중국이 1,606억 엔으로 1위, 칠레가 852억 엔으로 2위, 미국이 838억 엔으로 3위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물 총 수입액의 19.1%를 차지함
-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액이 늘어난 것은 가다랭이류가 16.4%증가, 방어가 27.9%증가, 모시조개가 46.6% 증가, 전복8.7% 증가, 돔이 7.8%증가, 정어리가 4.7% 증가함.
- 수입금액이 감소한 것은 수산물전체가 18.2% 감소하였으며 활어가 41.0%감소, 복오가 49.5%감소, 명란41.8%감소, 새우14.0%감소, 명태가 50.6%,로 나타남
- 한국산 수입동향
 - 참치류, 염건수산물(툰,미역,김), 활어, 전복, 삼치, 모시조개, 조제 게 (금액)순으로 수입되고 있음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09.9월)

- 가공식품(종합)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89.4로 전년동월 대비 0.0%로 전년수준이었음. 가공식품(주류를 제외)은, 86.5로 전년동월 대비-2.6%로 약간 하락함
- 가공식품(종합)의 9월 수입액은 1,044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16.6%로 큰 폭으로 감소함. 가공식품(주류를 제외)은 894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17.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축산가공품, 제곡분가공품, 당류, 과자, 음료, 조미료, 그 외의 조제 식료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산가공품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농산가공품, 주류가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음

□ 수산가공품의 수입동향(09.9월)

- 수산가공품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78.9로 전년동월대비 1.8%로 약간 상승하였음.
- 품목별로 보면, 가공뱀장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참치 캔 등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여 어란 조제품등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음. 한편, 게조제품이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고 새우조제품, 기타 수산조제품등이 약간 감소하였고 오징어조제품이 약간 감소하였음.

2. 수산물 생산동향

□ 품목별 시장상장 어획량

(단위 : 톤)

년도	월	다랑어류 Tuna							
		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Bluefin-tuna		Albacore		Bigeye tuna		Yellowfin tuna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2008	9	8	191	367	398	994	1,354	606	874
	10	12	133	427	760	1,240	1,733	350	919
	11	4	90	882	10	1,157	1,188	287	582
	12	20	172	1,963	287	977	1,695	248	437
2009	1	5	10	2,261	6	589	775	341	266
	2	6	27	2,245	146	453	1,271	525	490
	3	14	11	2,676	155	436	1,884	630	657
	4	47	32	1,859	123	543	1,864	504	674
	5	79	11	8,292	479	485	1,301	1,862	615
	6	470	4	12,240	5,591	488	1,971	867	510
	7	704	31	3,065	6,372	395	1,398	965	643
	8	770	138	361	1,391	439	1,183	851	972
	9	83	141	468	353	478	1,527	260	915
전년동월비(%)		1,038	74	128	89	48	113	43	105
전월대비 (%)		11	102	130	25	109	129	31	94

년도	월	가다랑어		정어리	눈동멸치	멸치	전갱이
		Skip-Jack					
		신선	냉동	Sardine	Round herring	Japanese anchovy	Jack mackerel
2008	9	7,657	14,173	677	6,483	1,196	7,902
	10	7,106	10,598	1,079	4,267	3,414	6,635
	11	600	14,461	47	725	2,725	5,346
	12	329	8,873	389	628	8,937	3,446
2009	1	165	15,686	126	820	4,020	5,789
	2	1,309	16,723	192	348	12,774	5,373
	3	1,330	18,552	562	1,777	15,143	4,797
	4	1,927	16,764	1,539	2,537	12,218	7,562
	5	7,747	21,454	2,144	1,126	5,995	16,982
	6	8,190	16,662	7,767	675	4,566	12,417
	7	6,962	16,934	6,071	1,726	4,226	10,799
	8	5,826	18,019	8,669	2,371	6,307	9,328
	9	6,201	13,626	3,134	3,066	1,698	10,780
전년동월비(%)		81	96	463	47	142	136
전월대비 (%)		106	76	36	129	27	116

년도	월	갈고등어	고등어류	꽂치	임면수	1) 오징어		
		Scad	Mackerel	Saury	Atka mackerel	Squids		
						신선	원양 (냉동)	근해 (냉동)
2008	9	903	59,668	71,269	9,047	11,421	-	12,446
	10	1,373	55,615	92,712	14,306	9,011	-	9,499
	11	1,212	63,588	72,929	11,804	9,443	-	7,205
	12	1,574	48,916	49,951	13,045	8,281	-	5,635
2009	1	3,152	36,473	69	9,253	2,374	-	2,111
	2	2,758	16,396	23	4,564	1,494	2	247
	3	1,249	17,344	2	7,776	793	-	78
	4	673	20,922	0	5,053	122	2	-
	5	1,239	18,371	1	9,968	644	448	-
	6	683	15,692	227	8,477	5,090	249	60
	7	475	16,857	1,145	997	7,702	12	2,372
	8	1,060	33,284	27,036	1,239	10,703	4	7,206
	9	2,217	54,318	65,045	10,125	13,194	36	9,687
전년동월비(%)		246	91	91	112	116	-	78
전월대비 (%)		209	163	241	817	123	900	134

□ 수산물 시장평균가격 (산지시장)

(단위 : 엔/kg)

년도	월	다랑어류 Tuna							
		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Bluefin-tuna		Albacore		Bigeye tuna		Yellowfin tuna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2008	9	1,761	2,792	629	349	1,314	1,001	730	681
	10	1,415	2,650	642	309	1,543	932	782	645
	11	1,635	2,270	527	341	1,267	844	870	411
	12	2,518	2,183	453	285	1,371	870	1,064	536
2009	1	4,344	2,503	374	295	1,001	766	749	343
	2	5,576	1,380	379	334	939	794	784	372
	3	5,482	2,290	341	348	1,234	801	893	549
	4	5,841	1,987	319	344	1,203	786	898	551
	5	2,698	1,376	233	243	985	709	447	595
	6	1,428	2,269	217	246	525	695	560	573
	7	1,099	1,998	270	287	717	825	635	594
	8	1,374	1,526	585	336	1,122	886	710	608
	9	2,606	1,742	466	311	1,289	879	849	518
전년동월비(%)		148	62	74	89	98	88	116	76
전월대비 (%)		190	114	80	93	115	99	120	85

년도	월	가다랑어		정어리	눈통멸치	멸치	전갱이
		Skip-Jack					
		신선	냉동	Sardine	Round herring	Japanese anchovy	Jack mackerel
2008	9	354	222	141	42	27	176
	10	288	184	132	54	33	171
	11	422	178	338	85	25	176
	12	275	189	77	81	18	242
2009	1	225	158	186	71	32	196
	2	274	141	238	99	34	223
	3	538	141	140	71	31	257
	4	614	168	88	66	32	196
	5	325	155	81	70	36	150
	6	338	147	86	105	35	145
	7	385	147	120	62	38	141
	8	356	154	111	44	35	150
	9	262	131	89	40	33	104
전년동월비(%)		74	59	63	95	122	59
전월대비 (%)		74	85	80	91	94	69

년도	월	갈고등어	고등어류	꽂치	임연수	1) 오징어		
		Scad	Mackerel	Saury	Atka mackerel	Squids		
						신선	원양 (냉동)	근해 (냉동)
2008	9	83	78	77	69	131	-	209
	10	92	90	59	43	147	-	210
	11	92	78	42	53	167	-	217
	12	112	82	26	31	172	-	223
2009	1	110	69	56	28	182	-	235
	2	116	84	61	38	235	197	249
	3	110	90	57	38	252	-	253
	4	169	85	117	65	434	197	-
	5	148	70	101	52	103	180	-
	6	124	64	28	56	108	170	214
	7	146	69	375	111	153	162	245
	8	120	73	130	124	154	173	226
	9	98	58	78	40	124	167	206
전년동월비(%)		118	74	101	58	95	-	99
전월대비 (%)		82	79	60	32	81	97	91

(자료원 : 농림수산성통계부 "산지수산물유통통계")

3. 수산물 가격동향

□ 일본 수산물 시황 및 전망 (2009년 10~11월)

1) 09년 10월 전체시황

-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총 입하량(수산물 신선품, 냉동품, 가공품의 합계)은 전월수준으로 도매가격(수산물전체 1kg당 평균가격)은 강세 추이를 보임

2) 09년 11월 주요품목 시황전망

- 정어리(신선품)
 - 입하량은 양륙의 절정이 지나 전월수준으로 전망되며, 도매가격도 보합세로(고가격) 전망됨
- 연어·송어 (염장, 냉동품)
 - 입하량은 전월수준으로 전망되고 도매가격은 큰 변화는 없고 보합으로 추이될 전망이다

- 고등어 (신선품)
 - 입하량은 전월수준으로 전망되며 도매가격도 보합세 추이 전망됨
- 오징어 (신선품, 냉동품)
 - 입하량은 전월수준으로 추이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매가격도 보합세 추이 전망됨.
- 전갱이(신선품)
 - 입하량은 전월수준으로 전망되며 도매가격도 보합으로 전망됨.
- 참치(냉동품)
 - 입하량은 전월 비교하면 붉은살 류, 지방살 류가 모두 약간 감소가 예상되며 도매가격도 보합으로 추이될 전망임
- 꽁치(신선품)
 - 입하량은 전월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매가격은 중형사이즈가 증가하여 보합세로 추이될 전망임

□ 일본 수산물 입하량 및 도매가격

-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총 입하량 · 평균가격

(단위: 천톤, 엔/kg)

구분	8월		9월		10월	
	입하량	가격	입하량	가격	입하량	가격
2009년	47	809	53	725	52	748
2008년	51	806	56	784	56	774

주.1) 입하량 및 도매가격은 각각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잠정수치

주.2) 입하량은 신선품, 냉동품, 가공품의 합계

○ 주요품목 가격

(단위: 엔/kg, %)

구 분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도매가격			
	10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평년동월대비
정어리(신선품)	590	145	74	99
연어·송어(평균)	664	98	104	108
고등어(신선품)	361	111	60	78
오징어(평균)	362	105	101	89
(신선)	367	106	100	87
(냉동)	323	100	110	96
전갱이(신선)	446	108	88	79
다랑어(냉동품)	1,354	105	94	102
꽂치(신선품)	312	96	86	95

주.1) 품목에 따라 시장에서 주류의 형태가 달라 시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가장 적당한 형태에 대해서 가격 데이터를 게재

주.2) 10월가격은 1~20일까지의 속보치. 평년은 04~08년의 가중평균치
(자료원 : 수산청 가공유통과 기획조사반)

4. 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09년 1-9월 농림수산물 수입액 : 4조9,965억엔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
 - 국가전체 수입액(37조3,817억엔)의 약 13.3%점유
 - 비중별 : 농산물(2조5,656억엔, 51.3%) > 수산물(9,565억엔, 19.1%) > 축산물(8,6439억엔, 17.3%) > 임산물(6,083억엔, 12.1%) 순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 엔, %)

구 분	2009년1-9월		전년동기 대비	2008년1-8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37,381,783,140	-	△39.0	61,261,007,364
농림수산물	4,996,513,076	100.0	△24.2	6,588,833,157
농 산 물	2,565,615,210	51.3	△26.3	3,482,221,845
축 산 물	864,395,913	17.3	△18.0	1,054,096,327
임 산 물	608,349,161	12.1	△30.3	879,900,485
수 산 물	956,565,811	19.1	△18.2	1,169,650,689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한국산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엔)

품목명	09년1-9월 금액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활어	22,970,437	-41.0	중국	10,632,699	대만	6,546,421	한국	4,284,361
뱀장어(치어)	11,746	-99.8	한국	11,531	인도네시아	215	-	-
가다랑어·다랑어류	145,823,698	-16.6	대만	22,753,685	한국	16,956,781	중국	12,798,698
다랑어류	141,429,361	-17.3	대만	22,060,089	한국	16,669,035	중국	12,798,698
날개다랑어	1,550,034	-22.4	한국	378,881	대만	378,748	바누아츠	268,800
황다랑어	17,992,706	-24.1	인도네시아	4,203,827	대만	3,780,986	한국	1,955,292
남방참다랑어	10,152,489	-25.4	호주	8,234,221	한국	1,368,593	뉴질랜드	299,932
고등어,꽂치,전갱이,정어리	12,855,802	-7.4	노르웨이	6,864,154	네덜란드	1,938,729	한국	867,399
전갱이(냉동)	5,359,720	-0.8	네덜란드	1,866,229	노르웨이	986,846	한국	850,619
방어	81,841	27.9	한국	79,385	중국	2,456	-	-
삼치	2,561,597	-5.5	한국	2,216,816	중국	334,048	바누아츠	5,135
복어	502,296	-49.5	중국	470,751	한국	31,545	-	-
상해 게	35,252	-34.5	중국	34,766	한국	486	-	-
전복	3,708,210	8.7	한국	2,286,442	호주	875,116	칠레	228,729
조개관자	460,496	-2.7	한국	300,248	중국	152,334	필리핀	7,914
모시조개	3,999,863	46.6	한국	2,168,244	중국	1,831,279	미국	340
염건수산물	36,700,667	-13.9	중국	10,382,100	한국	5,341,658	캐나다	5,092,002
오징어(염.건)	2,289,436	-1.6	중국	1,848,955	태국	291,896	한국	73,599
건김	406,175	-22.7	한국	348,430	중국	57,745	-	-
툰	2,525,065	-19.4	한국	1,871,016	중국	654,049	-	-
미역	5,297,012	-18.2	중국	4,173,574	한국	1,123,097	아일랜드	341
게(조제)	15,141,965	-8.7	중국	11,418,311	한국	2,120,203	베트남	1,016,160
한천	2,439,293	-26.2	칠레	940,240	한국	512,888	모로코	430,899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업성 무역통계)

□ 한국산 수입(금액) 및 총수입액 대비 점유율(09. 1-9월)

(단위: 천엔)

품목명	총 수입액	한국산수입액	점유율
활어	22,970,437	4,284,361	18.6%
뱀장어(치어)	11,746	11,531	98.1%
가디랑어·참치류	145,823,698	16,956,781	11.6%
참치류	141,429,361	16,669,035	11.7%
날개참치	1,550,034	378,881	24.4%
황참치	17,992,706	1,955,292	10.8%
남방참치	10,152,489	1,368,593	13.4%
고등어,꽁치,전갱이,정어리	12,855,802	867,399	6.7%
전갱이(냉동)	5,359,720	850,619	15.8%
방어	81,841	79,385	96.9%
삼치	2,561,597	2,216,816	86.5%
복어	502,296	31,545	6.2%
상해 계	35,252	486	1.3%
전복	3,708,210	2,286,442	61.6%
조개관자	460,496	300,248	65.2%
모시조개	3,999,863	2,168,244	54.2%
염건수산물	36,700,667	5,341,658	14.5%
오징어(염.건)	2,289,436	73,599	3.2%
건김	406,175	348,430	85.7%
툰	2,525,065	1,871,016	74.0%
미역	5,297,012	1,123,097	21.2%
계(조제)	15,141,965	2,120,203	14.0%
한천	2,439,293	512,888	21.0%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업성 무역통계)

5.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회복되고는 있으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고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수출은 아시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은 회복하고 있음.
 - 기업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게 되어 있음. 설비투자는 하락이 멈추고 있음.
 - 기업의 업무상황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템포는 늦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움.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물가동향을 종합해 보면 완만한 디플레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어려운 고용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해외경제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 경향이 계속되는 것이 기대됨. 한편, 고용정세의 한층 더 악화나 해외경기하락 염려, 디플레나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영향 등, 경기를 내리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가계의 지원에 의해, 개인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산업과 고용을 낳아, 일본경제를 자율적인 회복궤도에 실어 내수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도록 정책운명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환경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중점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경기의 하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세워 정리한다.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일본경제가 물가안정 하에서의 지속적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계속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적절하고 기동적인 금융정책운명을 기대하고 있음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하락이 멈추어지고 있음.
- 주택건설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공공투자는 건조한 추이를 보임
-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회복되고 있음. 무역·서비스 지수의 흑자는 증가하고 있음

□ 기업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화되고 있음. 또한 기업업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단지 중소기업에서는 그 속도가 늦으며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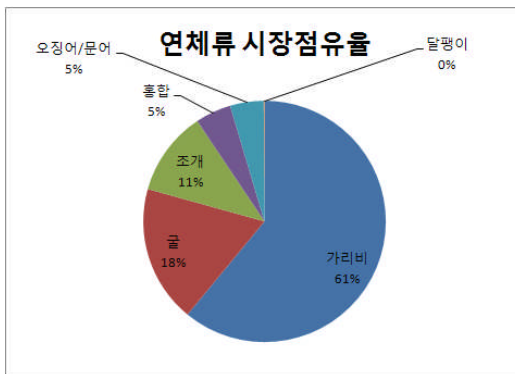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보합세임.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주가(일경평균주가)는 10,200엔대부터 10,300엔대까지 상승한 후 9,600엔대까지 하락하고 있음. 달러환율은 90엔대에서 92엔대까지 엔 하락후, 89엔대까지 엔 상승으로 추이되고 있음.

(자료원 : 11월20일 내각부 발표)

1. 현장 시장 포커스

□ 연체류 소비동향



가리비는 미국 수산물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연체류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육질이 부드러운데다 마일드한 맛이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바다가리비 시장은 큰 인기로 연체류중에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서양에서 어획되는 가리비물량은 총 5천만 파운드인 가격면에서는 약세를 보였으나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매출은 2008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리테일러들의 매출가운데 연체류는 전체수산물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기준 회계연도 7월25일 기준 52주) 가리비는 연체류판매에서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매장당 주간매출은 평균 \$175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평균매출을 보인 지역은 동부지역으로 매장당 주간매출은 \$441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5%가 늘어났으며 중부지역 역시 매장당 \$119로 전년 동기에 비해 4.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부와 남부지역은 감소, 남부지역은 매장당 평균매출이 \$117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9%하락했으며 서부지역 역시 매장당 평균매출이 \$114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6%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부, 서부, 남부 지역은 이에 따라 리테일러 수산물매출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의 경우, 연체류 매출가운데 2위로 동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가격하락세를 보였다. 신선가리비 시즌은 일반적으로 10월에서 3월까지 지속되며 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8.76의 높은 가격을 보인다. 가리비 매출은 크리스마스시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장당 평균 \$325의 매출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틸라피아의 미래

틸라피아는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흰살 생선으로 2008년 중국 냉해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냉해의 영향은 틸라피아 전체 공급물량의 25%를 하락시켰으며 여기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격까지 하락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나 올해는 생산물량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사실상 낙관적이라는 반응이 높다.

그러나 중국양식업체들은 현재 틸라피아시세에 대해 불만이 많다. 틸라피아 사태 당시 냉동 틸라피아 펠렛 도매가격은 3~5온스 사이즈가 파운드당 \$3이었으나 지난 9월 같은 사이즈 가격은 \$1.75까지 하락했으며 5~7온스 사이즈는 \$2~\$2.10, 7~9온스는 \$2.45~\$2.55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의 웨스턴 에지 시푸드사의 부사장 데이빗루스는 향후 2010년까지 파운드당 가격이 \$15~25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겨울이 시작 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재고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의 틸라피아 양식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가격이 오를 때를 지켜보다가 다시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틸라피아 최대 생산 업체로 2008년 대미 수출량은 304.7백만 파운드로 미국의 냉동틸라피아 수입의 77%를 차지했다고 국립해양서비스국은 밝혔다. 2009년 7월까지 미국은 전체생산량이 220백만 파운드의 78%인 172백만 파운드를 수입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입생선인 틸라피아는 메기나 가자미의 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마일드한 맛과 바삭한 육질 그리고 핏감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틸라피아의 수입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산물 어획 및 수입 동향

□ 미국 새우시장 잠잠

미국 새우 수입업체들이 연말이 되면서 바이어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올해 늦은 여름과 초가을 새우시장은 '특별히 잠잠'했다는 평이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새우산업 전문가들에게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불경기의 영향이 가시

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흰점박이병의 확산으로 인해 새우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물량이 급감했으며 일부 새우 팩커들은 계약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기도 했다.

미국 새우수입은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산의 경우 올해 7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6% 하락했으며 8월은 4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수입물량을 보면 111백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하락했다. 이에 반해 미국시장은 냉랭했다. 인도네시아산 새우는 물량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했다. 일반적으로 새우는 하반기가 되면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 보통 10월 중순이 되면 동아시아산 흰새우 21~25s, 26~30s는 mid-\$3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산 흰새우는 미국새우시장을 강타해 지난 8월까지 수입은 35백만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75%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유럽 대서양연어생산 증가

유럽에서 생산되는 양식연어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대유럽수입은 8월까지 57백만 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수입량은 24백만 파운드였다. 세계 최대 양식연어 생산업체인 Marine Harvest사는 올해 노르웨이산 연어가 강세를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3/4분기 기간 동안 53천톤을 생산 지난해 동기 생산량 18천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미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고했으며 지난해 8월까지 2.6백만 파운드에 비해 올해 동기 5.5백만 파운드로 2배이상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칠레산의 경우, 연어빈혈증으로 3/4분기 수출이 전무했으며 캐나다 역시 슬럼프현상을 겪고 있다.

Marine Harvest사는 캐나다에서 지난 3/4분기동안 5,000톤의 양식연어를 생산 지난해 동기 6,800톤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2/4분기 생산량은 12,300톤으로 지난해 동기물량인 10,000톤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상승과 어획타이밍, 2년생 연어 출현 등이 어획물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분기 Marine Harvest사는 2009년 어획량이 38000톤이 될 것으로 지난해 보다 어획물량 2000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에서 Marine Harvest사가 올해 예상하는 어획물량은 약 8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7만3천톤에 비해 높은 수치다.

□ 배어링해와 아이슬랜드 대구 재고 안정세

배어링해바다 대구의 2010년 쿼터물량이 607천 톤으로 확정되면서 2008년 525천 톤과 2009년 546천 톤보다 높은 물량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배어링해 대구가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약 250만 톤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숫자의 증가는 지난 2004년부터 준비해온 어획량 조절로 인해 2007년까지 쿼터가 크게 감소했었다.

아이슬랜드의 경우 2009-10년 쿼터를 150만 톤으로 2008-09년의 160만 톤에 비해 감소시켰다. 사실 아이슬랜드는 2008-09년 쿼터를 130만 톤으로 결정했으나 물량이 늘어나면서 1월까지 3만톤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쿼터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대구 공급은 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구필렛수입물량은 지난 8월까지 3백 50만 파운드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6%증가했다.

EU의 경우, 과학자들은 안정된 물량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10월 초 기존 쿼터에서 25%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지난 10월 중순 냉동대구필렛은 mid-\$4(f.o.b.중대서양)에 거래되었으며 뉴잉글랜드산 신선대구필렛은 \$7.50에 거래됐다.

□ 알래스카 킹크랩 쿼터 20%축소

알래스카 킹크랩시즌이 시작되었으나 전세계의 불황과 맞물려 바이어들의 구매가 주춤하자 알래스카에서 생산쿼터를 축소시켰다. 킹크랩 빅바이어국가인 일본의 경우 엔화가 강세인데다 일본경제역시 큰 압박속에 있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10월 15일 오픈한 킹크랩 어획시즌의 선상가격은 \$4.67로 지난해 \$5에 비해 하락했다. 킹크랩 쿼터역시 지난해 20.4백만 파운드에서 올해 16백만 파운드로 약 25%감소했다. 미국시장은 90%이상 러시아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작은 사이즈의 킹크랩의 경우 재고 물량이 많이 현지시장가격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은 지난 8월까지 약 4%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 25.5백만 파운드가 늘어났다. 알래스카 스노크랩 역시 10월 15일 오픈해 5월 중순까지 어획시즌이 지속되지만 물량 역시 48백만 파운드로 지난해에 비해 10.5백만 파운드가 축소됐다.

10월 중순 냉동킹크랩 6-9개(집게,다리숫자)사이즈는 high-\$12에서 low-\$13에 거래되었으며 9-12개사이즈는 low to mid-\$11에 12-14사이즈는 mid-\$9, 14-17사이즈는 mid-\$8, 16-20사이즈는 high-\$7에 20-24사이즈는 high-\$6에서 low-\$7 그리고 20사이즈 이상은 high-\$5에서 low-\$6에 거래됐다.

□ 오징어 공급물량 부족사태 계속

남서부 대서양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오징어 물량이 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농업기구인 FA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서부 대서양에서 어획된 오징어는 총 6만 5천톤으로 지난해 334천톤에 비해 급감했다.

특히, 포르켈랜드/말비나스섬에서 어획되는 일렉스 오징어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총 45톤으로 지난해 동기 9만4천톤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롤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기 25천톤에서 13천톤으로 감소했으며 주요 수출국들도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1/3분기 아르헨티나의 오징어수출은 28,700톤으로 지난해 동기수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오징어 수출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48.7백만 파운드에서 46.4백만 파운드로 감소했다고 국립해양서비스(NMFS)는 전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오징어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나 대스페인수출은 소량 감소해 스페인은 지난해 2만톤에서 올해 18천300톤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오징어 수입은 지난 8월까지 82.9백만 파운드로 지난해 동기 97.3백만 파운드로 감소했다.

□ 미국 FDA생굴판매금지법 반대에 부딪혀

미국 FDA의 생굴판매 금지 노력이 굴양식업자와 하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15명이 생굴 관련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어 FDA는 이에 2011년부터 걸프만에서 바닷물이 따뜻한 기간에 수확된 생굴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건강을 위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비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약 2/3의 굴이 걸프만에서 채취되고 있으며 약 40%가 바닷물이 따뜻할 기간에 채취되고 있다. 또한 굴 소비의 약 절반이 날것으로 소비되고 있다. 정부의 금지법에 반대하는 양식업자와 식당주인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국남부의 생굴 음식문화를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생굴을 저온살균하거나 살짝 익히는 것 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정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굴과 살균 처리한 굴의 맛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수산물 가격 동향

냉동계		
스노우크랩, 클러스터 F.O.B 중대서양 뉴파운드랜드		세인트로 만
4온즈 이상	2.75~2.90	2.90~3.00
5~8온즈	3.20~3.35	3.20~3.35
8온즈 이상	3.75~3.85	3.75~3.850
10온즈 이상	3.85~3.95	3.85~3.95
오징어		
F.O.B 중대서양 몸통과 다리	중국	태국
3~5 인치	1.55~1.65	2.20~2.305
5~8 인치	1.95~2.05	2.90~3.00
8~12 인치	-	-
오징어튜브(몸통)		
3~5 인치	2.05~2.15	-
5~8 인치	2.35~2.45	-
오징어링	2.60~2.70	
냉동참치 (껍질과 뼈제거 진공포장) 중대서양 F.O.B.	대서양	
옐로우핀, 2~5파운드	4.25~4.50	
5~7파운드	4.70~4.90	
7파운드 이상	4.70~4.90	
냉동대구 (뼈와 껍질제거)		
허리아래살 3~4온즈	4.40~4.60	
5~8온즈	4.50~4.70	
신선 패조류	중대서양 F.O.B.	
굴, extra Select (\$/ 파운드)	8.15~8.25	
굴, Select (\$/ 파운드)	7.70~7.80	
굴, Standard (\$/ 파운드)	7.70~7.80	
신선 참치 , 60파운드 이상	국내산	수입산
옐로우핀참치 1등급	7.00~7.50	7.00~7.25

(자료:Urner Barry's Seafood Price Current 2009.11.22)

□ 흰새우

- 26~30사이즈 흰새우를 포함한 큰사이즈의 새우들이 연만시즌판매를 위해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음.
- 머리없는 블랙타이거새우 13-15사이즈는 물량부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야생새우는 현재 생산물량한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역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신선 수산물 및 패조류

- 수입산 그루퍼의 경우 \$3.95~4.95에 소량거래되고 있으나 물량은 부족한 상태이며 참치와 상어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할리벳 (큰넙치)의 경우 어업이 2010년에 재오픈 전까지는 닫혀있어 냉동할리벳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역시 물량은 한정되어 있음.

□ 뉴욕헌츠포인트마켓 (전 풀턴마켓) 동향

- 수산물판매물량은 늘어났으나 수산물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큰 기대는 어려움. 광어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블랙피쉬, 블루피쉬, 대구는 물량한정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헤이크, 포기, 오징어, 생태등은 안정된 물량을 보이고 있으며 신선계 역시 물량 안정됨.

3. 미국의 수산물 수입동향

□ 2009년 9월 미국 수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수 출 액	3,093,754	2,800,360	-9.48
수 입 액	10,187,165	9,560,299	-6.15
무역수지	-7,093,411	-6,759,939	

자료원: FAS. USDA

□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천불)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칠레
총수입액	9,560,299	1,574,896	1,457,650	1,386,017	718,467	594,097
전년 동기대비(%)	-6.15	-12.61	-2.25	0.35	-16.13	-20.11

자료 FAS. USDA

<미국 수입 동향 분석 (2009. 9월말 기준)>

- 2009년 9월까지 미국 수산물 총수입액은 9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15% 하락했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수입 물량 및 금액이 감소함. 특히, 외식업체가 불황을 겪으면서 수산물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주요 증가품목은 절임고등어, 동태, 멸치젓, 냉동게 등으로 냉동 및 가공생선 수입이 증가함. 주요 감소품목은 냉동생선전체, 갑각류, 건조생선, 새우 등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함.
 - 냉동생선전체 주요수출국인 중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수입 -17.28%감소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10.55%줄어듦
 - 새우 및 참새우 등 주요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콰도르는 -20.76%, -12.23%, -7.8%감소 했으나 멕시코, 태국은 45.27%, 5.21%로 각각 증가. 새우전체는 -5.71%감소
 - 훈제, 염장 생선 전체는 3.24%상승
 - 굴은 일본과 한국수입에 힘입어 2.89%상승
 - 냉동홍합전체수입은 -25.22%하락했으며 칠레 냉동홍합은 41.06% 증가한데 반해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37.33%, -32.39%감소함.
 - 김(기타 해초류제품 포함)은 -7.79%감소, 주요수출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감소함. 한국은 전년 동기에 비해 -39.35%감소.

□ 2009년 9월 한국산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불)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62,684	9.71%	73,740	17.64%

자료: FAS, USDA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2009. 9월말 기준)

- 한국산 수산물전체 수입액은 7,374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6,284만 달러 대비 17.64%늘어남.
- 주요 증가품목은 장어, 고등어, 냉동게, 활오징어, 건조염장생선, 절임고등어, 멸치 >6.8kg 등이며, 주요 감소품목은 새우, 김, 냉동오징어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산물 수입이 모두 늘어났음.
- 냉동생선전체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7백만 달러 대비 23.5% 증가
- 건조, 염장생선은 전년도 408만 달러에서 521만 달러로 27.81%증가
- 갑각류전체는 전년도 112만 달러에서 212만 달러로 89.21%증가
- 굴은 전년도에 648만 달러에서 670만 달러로 3.39%증가
- 신선(살아있는)오징어는 지난해 동기 75천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늘어남.
- 김(기타 해초류 제품 포함)은 전년도 906만 달러에서 549만 달러로 -39.35% 하락

□ 주요품목의 5대 국가별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불)

품 목	국 가	'07	'08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냉동생선전체 0303	중국	106,797	123,473	87,139	72,491	-16.81
	노르웨이	43,398	38,939	26,344	21,032	-20.16
	캐나다	40,249	40,572	30,828	23,798	-22.80
	대만	39,702	61,373	46,333	35,848	-22.63
	인도네시아	33,531	22,931	17,243	18,804	9.05
	계	263,678	287,288	207,887	171,973	-17.28
- 엘로우핀 참치 030342	인도네시아	20,318	10,669	7,899	12,197	54.41
	필리핀	13,091	8,089	5,882	2,790	-52.57
	태국	3,766	1,959	1,621	584	-63.97
	트리니다드	1,486	1,346	1,028	472	-54.09
	오만	1,174	935	813	0	--
	계	39,834	22,998	17,244	16,043	-6.96
- 동태 0303790009	중국	1,787	540	376	387	2.93
	한국	69	236	154	200	29.87
	캐나다	60	22	14	29	107.14
	일본	10	29	29	0	--
	계	1,926	827	573	616	7.50
- 고등어 030374	노르웨이	6,980	8,008	1,715	2,906	69.45
	캐나다	2,875	2,259	709	256	-63.89
	대만	1,337	1,654	1,530	617	-59.67
	일본	1,194	1,310	704	869	23.44
	중국	925	500	346	393	13.58
	계	13,312	13,731	5,003	5,040	0.74
- 뱀장어 030376	중국	5,820	12,352	10,329	3,579	-65.35
	베트남	417	465	319	197	-38.24
	한국	214	220	26	452	1638.46
	대만	173	495	495	400	-19.19
	캐나다	46	58	4	16	300.00
	계	6,671	13,590	11,172	4,645	-58.42
○ 건조 훈제염장생선 0305	캐나다	47,316	45,505	30,149	26,892	-10.80
	중국	46,912	59,106	41,633	42,187	1.33
	칠레	30,799	32,682	23,980	22,569	-5.88
	인도네시아	18,968	16,424	13,256	18,718	41.20
	네덜란드	17,168	18,135	12,500	11,026	-11.79
	계	161,163	171,852	121,517	121,393	-0.10

(계속)

품목	국가	'07	'08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건조생선 030559	중국	6,244	3957	2,956	2,029	-31.36
	캐나다	3,164	3791	2,831	2,544	-10.14
	일본	3,024	3426	2,466	2,160	-12.41
	한국	2,056	2049	1,419	2,262	59.41
	홍콩	1,317	1926	1,245	1,076	-13.57
	계	15,805	15148	10,917	10,071	-7.75
- 고등어(절입) 0305693000	한국	445	332	219	371	69.41
	중국	325	671	533	674	26.45
	칠레	297	0	0	0	--
	노르웨이	223	707	0	153	--
	캐나다	187	187	168	57	-66.07
	계	1,477	1898	919	1,256	36.67
- 멸치젓(<6.8kg) 0305634000	한국	249	604	350	71	-79.71
	베트남	133	83	7	337	4714.29
	일본	76	103	0	0	--
	필리핀	29	9	6	19	216.67
	중국	20	0	0	0	--
	계	508	799	364	428	17.58
- 멸치젓(>6.8kg) 0305636000	아르헨티나	898	1,093	667	492	-26.24
	한국	622	553	211	502	137.91
	일본	155	103	93	71	-23.66
	베트남	116	6	6	0	--
	인도	47	124	71	11	-84.51
	계	1,839	1,878	1,048	1,075	2.58
○ 갑각류전체 0306	캐나다	958,958	965,131	810,686	701,182	-13.51
	태국	753,922	778,156	534,437	528,376	-1.13
	베트남	394,536	402,774	262,269	233,713	-10.89
	인도네시아	384,750	549,892	434,664	331,916	-23.64
	러시아	375,799	271,076	199,569	203,156	1.80
	계	2,867,965	2,967,028	2,241,624	1998,342	-10.85

(계속)

품목	국가	'07	'08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새우 및 참새우 0306130003/6/9/ 12/15/18/20/ 21/24/27/40/ 20/40 1605200500/10/9 0/1010/1020/1 030/1040/1050	태국	1,237,880	1,287,445	864,852	909,916	5.21
	베트남	459,597	481,304	307,025	269,487	-12.23
	인도네시아	447,600	632,453	497,766	394,426	-20.76
	멕시코	358,515	340,292	126,899	184,351	45.27
	에콰도르	308,700	339,936	276,798	255,197	-7.80
	계	2,812,292	3,081,430	2,073,340	2013,376	-2.89
- 냉동게 030614	러시아	375,757	270,958	199,487	202,991	1.76
	캐나다	374,833	356,351	335,244	343,540	2.47
	중국	35,251	23,305	18,494	9,155	-50.50
	태국	11,340	13,707	8,816	13,040	47.91
	그린란드	7,917	4,128	2,887	3,775	30.76
	계	805,098	668,449	564,929	572,501	1.34
- 대게 (King Crab) 0306144010	러시아	335,269	237,947	171,093	176,921	3.41
	중국	19,904	11,479	10,937	2,301	-78.96
	일본	3,981	810	810	2,460	203.70
	아르헨티나	1,001	1,947	1,808	1,572	-1305
	노르웨이	829	5,388	1,891	2,608	37.92
	계	360,984	257,571	186,539	185,862	-0.36
- 스노크랩 (Snow Crab) 0306144020	캐나다	350,349	331,070	313,809	331,211	5.55
	러시아	34,840	27,466	23,768	20,941	-11.89
	그린란드	7,917	4,128	2,887	3,775	30.76
	중국	2,559	3,177	2,211	1,859	-15.92
	일본	1,643	402	289	258	-10.73
	계	397,308	366,243	342,964	358,044	4.40
○ 기타 해산물 (연체동물) 0307	중국	153,099	154,302	114,371	100,920	-11.76
	캐나다	128,965	118,278	93,063	80,054	-13.98
	일본	64,340	96,274	55,467	56,119	1.18
	뉴질랜드	47,444	52,681	44,515	32,184	-27.70
	태국	33,364	39,577	31,700	19,532	-38.38
	계	427,214	461,113	339,116	288,810	-14.83

(계속)

품목	국가	'07	'08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굴 030710	캐나다	10,505	7,952	6,196	5,870	-5.26
	한국	9,180	7,640	6,488	6,708	3.39
	멕시코	1,157	1,561	1,273	1,382	8.56
	일본	1,038	502	295	1,170	296.61
	중국	549	261	208	119	-42.79
	계	22,429	17,917	14,460	15,249	5.46
- 홍합(냉동) 030739	뉴질랜드	38,107	45,329	38,835	26,258	-32.39
	칠레	1,929	5,923	4,506	6,356	41.06
	캐나다	793	876	742	465	-37.33
	인도	179	0	0	0	--
	중국	148	45	45	152	237.78
	계	41,156	52,174	44,128	33,231	-24.69
- 오징어(Live) 030741	인도	735	334	213	150	-29.58
	중국	519	644	482	235	-51.24
	태국	453	1,131	665	547	-17.74
	베트남	237	46	0	47	--
	일본	125	38	38	105	176.32
	계	2,070	2,193	1,398	1,084	--2.46
- 오징어(냉동, 냉장) 030749	중국	74,308	76,027	56,984	52,235	-8.33
	태국	29,973	36,270	29,310	16,333	-44.27
	인도	18,629	24,473	18,346	9,946	-45.76
	대만	13,718	12,643	9,659	12,200	26.31
	페루	6,992	2,798	1,739	3,733	114.66
	계	143,621	152,211	116,038	94,448	-18.61
- 김(기타, 해초류 제품 포함) 1212200000	중국	20,080	25,368	20,130	17,101	-15.05
	한국	9,478	11,027	9,063	5497	-39.35
	캐나다	8,950	10,926	8,366	7473	-10.67
	일본	7,780	8,249	6,182	5310	-14.11
	칠레	3,351	3,350	2,562	3455	37.86
	계	49,638	58,920	46,302	38838	-16.12

자료원)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9. 9월 말 기준) >

(단위: 천불)

품목	'07 금액(천불)	'08 금액(천불)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냉동생선전체	14,616	24,197	16,827	20,782	23.50
- 엘로우핀 참치	478	178	179	13	-92.44
- 동태	69	236	154	200	29.87
- 고등어	725	1,232	473	2,595	448.63
- 장어	214	220	26	452	1638.46
○ 건조-염장생선	5,459	6,036	4,081	5,216	27.81
- 건조생선	2,056	2,049	1,419	2,262	59.41
- 고등어(절임)	445	332	219	371	69.41
- 멸치젓< 6.8kg	249	604	350	711	-79.71
- 멸치젓> 6.8kg	622	553	211	502	137.91
○갑각류전체	1,366	1,418	1,121	2,121	89.21
- 새우 및 참새우	252	654	570	187	-67.19
- 냉동게	530	354	301	1,571	421.93
9 - 킹크랩	21	0	0	927	--
- 스노우크랩	343	194	194	538	177.32
○기타해산물(연체동물)	15,327	16,557	13,125	12,684	-3.36
- 굴	9,180	7,640	6,488	6,708	3.39
- 오징어	40	226	75	258	244.00
- 오징어 (냉동)	5,343	7,579	5,680	5,153	-9.28
-김(기타해초류제품포함)	9,478	11,027	9,063	5,497	-39.35

자료: USDA BICO Report

중	국	상하이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中, 3/4분기 어업분야 분석]

- 금년 3/4분기 어업의 형태를 분석하면 양식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한 반면 어획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산물시장은 거래가 활발하였고 가격은 안정적이었다고 분석된다.

□ 어업분야의 특징

- 중국의 20개 성(省) 수산물 주요 생산지역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수산물 총 생산량은 2,779만 톤으로 4.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식수산물은 1,980만톤에 동기대비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10개 성(省)의 404개 민물양식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8월까지 양식면적 및 치어 투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 수산물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금년 치어와 사료 등 수산물 양식에 직접 연계되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 및 국내 수산물 시장의 활성화, 가격안정
 - 2008년 각급 국가재정에서 4.5억 위안을 기초건설에 투자하여 양식 환경을 개선함으로 양식수량, 품질에 좋은 조건을 마련
 - 건강양식, 약품 사용기준 등 과학적인 양식방법을 양식자에게 가르쳐 품질이 좋은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
 - 금년의 경우 기후변화가 적었으며 연 평균온도가 높아 양식에 적정한 날씨였으며 대부분 수산물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장어, 틸라피아는 수출량이 감소됨에 따라 손실이 크다.

- 8월말 현재 전국 18개 지역 해양포획 통계에 따르면 해양 포획수량은 667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3.85%가 감소한 셈이다. 해양 포획 수량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휴어기간을 2.5개월에서 3개월로 연기함과 동시에 어업관계부서들이 해양포획관리 강화, 어업자원 부족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해(渤海)지역 상반기 수온이 전년대비 낮은 편이어서 어업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수산물 거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8월말 현재 중국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은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 30개 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거래량 246톤에 413억위안에 달해 동기대비7%,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거래 가격은 1Kg당 15.27위안으로 동기대비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중 해산물의 평균가격은 1Kg 당 26.42위안으로 동기대비 0.46% 증가, 이와 동시에 민물수산물의 평균가격은 1Kg 당 11.24위안으로 동기대비 4.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월 까지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수산물 수출은156만 톤에, 56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대비 각각7%와 2.3%가 감소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대 미, 유럽, 일본, 한국 등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 수산물 수출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 이 외에 원양어업의 경우 주변국가가 중국 남해에서 포획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어선도 국경을 넘어서 포획하는 외교사건도 발생하고 있어서 어업부문의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어업경제 발전전망

- 2009년 수산물 생산은 4~5%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 포획보다 수산물 양식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산물 공급이 원활하여 가격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포획성수기에 따른 약간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 : 식품상무왕, 10. 28>

2. 수산물 가격동향

□ 주요 수산시장별 도매가격 동향

(단위: 元/kg)

품목	상해 까르푸매장 (까르푸 베이점) (11. 12)	상해통완수산시장 (上海銅川水產市場) (10. 30)	북경신발지도매시장 (北京新發地批發市場) (11. 11)	광둥잔장수산도매시장 (湛江山產批發市場) (11. 11)
참치	-	-	-	-
김	96.0	-	-	-
굴	77.6	-	6.5	-
넙치	156.0	44.0	44.0~48.0	-
대전복(활전복)	-	400.0	-	800(중국 해남산)
소전복	-	110.0	-	520(중국 해남산)
오징어	79.6	22.0	9.0	36.0
민물장어(河鰻)	116.0	50.0	-	-
꽃게(紅花蟹)	-	70.0	-	44.0~50.0
미역	17.6	-	-	-
고등어	-	-	-	-
연어	196	66.0	-	-
갈치(중국동해산)	59.6	28.0	15.0(300g이상) 10.0(300g미만)	24.0

3. 수출입 동향

□ 수출입 동향 개요

- 2009년 7월 중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87,887.3만 달러로 전월대비 2,512.4만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96,185.1만 달러)대비 8.6%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09. 1~7월 수산물 수출액은 533,548.9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545,845.2

만 달러) 2.3%가 감소한 것이다.

- 2009년 7월 중국의 수산물 수입액은 27,262.7만 달러로 이는 전월대비 2,663.9만 달러 감소된 것이며, 전년 동기(31,654.6만 달러) 대비 13.9% 감소한 것이다. 2009. 1~7월 수산물 수입액은 183,784.5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200,837.6만 달러) 8.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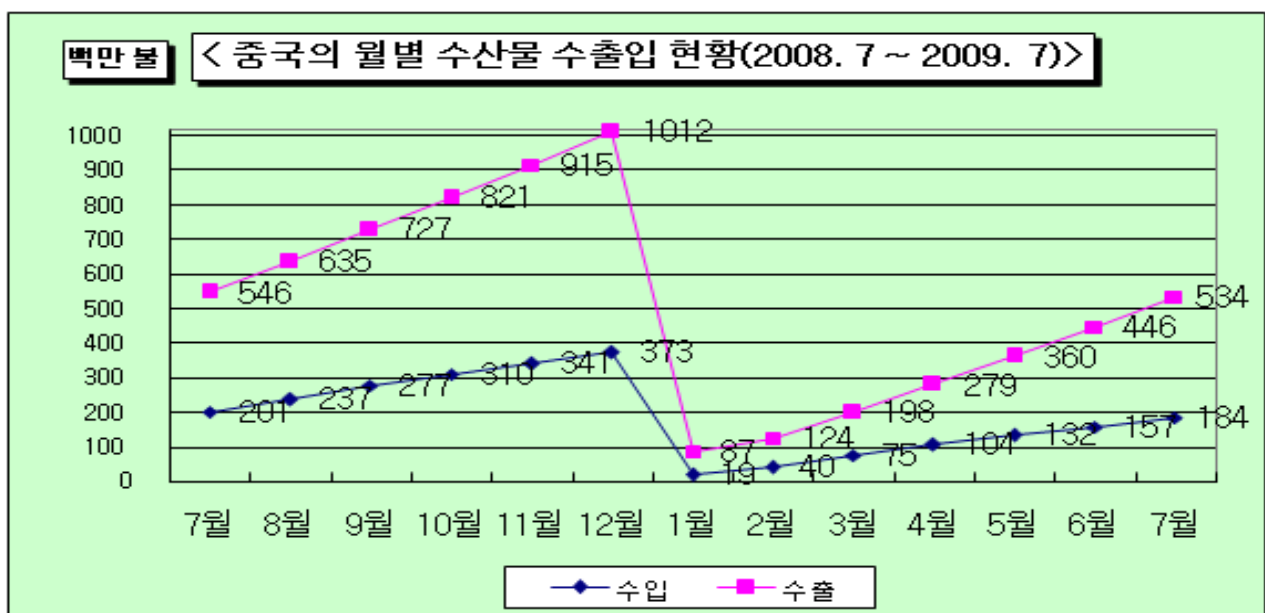
< 2009. 7월 중국 수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만달러)

구 분	7월 당월		1~7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87,887.3	△8.6	533,548.9	△2.3
○ 수 입 액	27,262.7	△13.9	183,784.5	△8.5
□ 무역수지	60,624.6	-	349,764.4	-

자료: 상무부(<http://cccfna.mofcom.gov.cn/tongjiziliao/tongjiziliao.html>)

< 중국의 월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 >



4. 주요품목 3대 국가별 수출동향

품목	국가	'08. 9월		'09. 9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참치 (신선·냉장)	일본	20	84	2	8
	스페인	0	0	0	0
	우크라이나	0	0	0	0
	기타	0	0	0	0
	계	20	84	2	8
참치 (냉동)	태국	10,462	11,132	6,077	5,260
	필리핀	1,375	1,429	2,925	3,226
	말레이시아	156	258	164	228
	기타	1,807	4,959	5,960	9,721
	계	13,800	17,778	15,126	18,435
김 (건조)	대만	1,042	12,923	911	10,334
	태국	495	4,876	518	4,417
	미국	210	3,143	39	381
	기타	208	2,382	239	1,856
	계	1,955	23,324	1,707	16,988
굴 (신선·냉동)	홍콩	1,503	3,496	1,313	3,274
	마카오	754	462	555	266
	일본	33	253	22	132
	기타	112	280	9	40
	계	2,402	4,491	1,899	3,712
넙치 (신선·냉장)	일본	1	22	1	24
	한국	0	0	0	0
	미국	0	0	0	0
	기타	0	0	0	0
	계	1	22	1	24
전복 (신선·냉동)	일본	4	60	34	552
	홍콩	0	0	1	215
	싱가폴	0	0	0	0
	기타	0	0	25	1,258
	계	4	60	60	2,025

품목	국가	'08. 9월		'09. 9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오징어 (신선·냉동)	일본	18,737	66,437	20,394	79,817
	미국	13,773	38,886	17,988	71,847
	대만	8,965	11,807	5,319	31,096
	기타	55,904	116,386	57,308	155,776
	계	0	0	0	0
장어 (냉동)	홍콩	257	2,243	35	339
	폴란드	264	2,593	309	2,992
	필리핀	125	1,463	13	59
	기타	978	5,787	364	2,980
	계	0	0	0	0
게 (신선·냉동)	일본	4,449	23,566	3,032	18,086
	한국	4,054	13,469	3,664	14,916
	미국	3,405	10,711	2,763	15,748
	기타	2,468	8,708	2,776	14,399
	계	0	0	0	0
미역	대만	6,423	8,219	4,790	7,153
	러시아	5,415	10,705	1,885	2,837
	일본	1,757	7,370	1,053	5,047
	기타	2,938	6,374	1,268	2,395
	계	0	0	0	0
고등어 (냉동)	태국	14,264	10,343	4,825	3,690
	인도네시아	7,476	5,803	30,217	22,169
	말레이시아	623	736	579	593
	기타	9,849	7,909	11,347	10,724
	계	0	0	0	0

5. 주요품목 3대 국가별 수입동향

품목	국가	'08. 9월		'09. 9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참치 (신선·냉장)	일본	9	250	10	333
	대만	6	53	7	60
	필리핀	1	10	1	9
	기타	3	39	7	77
	계	19	352	25	479
참치 (냉동)	미국	628	1,478	219	506
	한국	957	2,065	1,614	2,642
	세이셸	995	4,161	0	0
	기타	6,583	15,899	14,085	18,102
	계	9,163	23,603	15,918	21,250
김(건조)	한국	46	268	35	357
	일본	9	128	0.5	14
	칠레	8	44	4	20
	기타	2	36	0.5	6
	계	65	476	40	397
굴 (신선·냉동)	미국	61	315	47	290
	프랑스	13	166	9	106
	뉴질랜드	19	85	19	171
	기타	29	158	93	576
	계	122	724	168	1,143
넙치 (신선·냉장)	노르웨이	0	0	0	0
	북한	0	0	0	0
	네덜란드	0	0	0	0
	기타	0	0	0	0
	계	0	0	0	0
전복 (신선·냉동)	호주	7	656	21	1,224
	남아공	0.5	24	0.5	20
	페루	2	23	0	0
	기타	38	264	23	160
	계	47.5	967	44.5	1,404

품목	국가	'08. 9월		'09. 9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오징어 (신선·냉동)	한국	79,498	70,835	16,589	17,994
	페루	82,100	72,529	47,099	36,052
	미국	28,869	37,455	21,983	29,070
	기타	177,874	170,872	72,225	82,122
	계	0	0	0	0
장어 (냉동)	태국	5,202	4,218	1,832	1,849
	일본	886	871	994	1,102
	인도	1,238	1,220	593	696
	기타	2,701	2,396	3,062	3,485
	계	0	0	0	0
게 (신선·냉동)	한국	2,518	4,966	1,359	2,554
	러시아	6,984	19,415	4,351	13,810
	일본	2,281	8,698	1,488	6,034
	기타	20,493	83,714	15,647	59,902
	계	0	0	0	0
미역	일본	109	469	72	480
	러시아	2	24	0	0
	한국	12	45	7	24
	기타	118	10	144	28
	계	0	0	0	0
고등어 (냉동)	노르웨이	38,187	55,845	12,039	19,839
	일본	16,167	16,555	7,001	7,819
	한국	8,117	5,438	1,862	1,349
	기타	16,427	19,680	8,063	10,556
	계	0	0	0	0

6. 한국산 품목별 수입동향

품목	중국 총 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점유율(%) B/A
	‘08년 9월		‘09년 9월(A)		‘08년 9월		‘09년 9월(B)		
	물 량(톤)	금액(천불)	물 량(톤)	금액(천불)	물 량(톤)	금액(천불)	물 량(톤)	금액(천불)	
참치 (산선·냉장)	19	352	25	479	-	-	-	-	-
참치(냉동)	9,163	23,603	15,918	21,250	957	2,065	1,614	2,642	10 / 12
김	65	476	40	397	46	268	35	357	88 / 90
굴	122	724	168	1,143	-	-	-	-	-
넙치	-	-	-	-	-	-	-	-	-
전복	47.5	967	44.5	1,404				-	-
오징어	368,341	351,691	157,896	165,238	79,498	70,835	16,589	17,994	11 / 11
장어	10,027	8,705	6,481	7,132	-	-	-	-	-
게	32,276	116,793	22,845	82,300	2,518	4,966	1,359	2,554	6 / 3
미역	241	548	223	532	12	45	7	24	3 / 5
고등어	78,898	97,518	28,965	39,563	8,117	5,438	1,862	1,349	6 / 3

자료: www.kita.net

1. 현지시장 포커스

1.1. 태 국

- 태국 새우협회 회장 Somsak Paneetatyasai는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새우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당초 세계 경기둔화를 예상하여 생산량을 20% 감축하려던 계획을 무안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였다.
- 태국의 새우 수출은 2009년 1-8월 누계 U\$ 15.3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2009년 총 누계금액 U\$ 26.7억을 기록하여 2008년의 U\$ 25.4억 대비 약 5% 증가된 수

출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 태국의 새우 생산은 2008년 495,000톤을 기록한데 이어, 2009년에 505,000톤, 2010년에는 52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90%의 물량이 수출된다. 수출 1위 대상국은 약 50-5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며, 일본 및 유럽이 10-15%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새우는 품질의 우수성으로 전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 태국 새우 수출의 위험요소로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국의 사탕수수, 새우, tilapia, 의류산업 등에 대한 미성년자 노동, 강제노동 등에 관한 반-덤핑조사로서, 동 사건에 대한 공개조사는 2009년 12월 10일 종결될 예정이다.
- 태국 외교통상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태국 냉동식품협회 (TFFA)의 Panisuan Jamnarnvej 회장은, 태국의 노동법에 따라 태국의 노동자는 모두 18세 이상으로, 미국측의 주장은 태국의 새우가 미국의 전체 수입량에서 25-30%를 점유하고 있는데 따른 비관세장벽이라고 일축하였다. 미국 노동부의 국제노동사무

국 (ILAB)의 발표에 따라, 미국의 소매업자 및 바이어들이 개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태국의 새우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Bangkok Post)

1.2. 베트남

-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EU가 새롭게 시행하는 IUU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EU에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제품별 원산지 증명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너무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 2009년 10월 31일부터 계도기산이 시작 되었지만, 수출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지적받는 것을 바라보는 국립 농산-임산-수산 품질보증부 (NAFIQAD)의 Tran Bich Nga 차관은 2010년 1월의 원산지 증명서 구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 Nhatrang 소재의 수산물 가공업체의 Nguyen Xuan Nam 사장은 대부분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선박주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수산물을 통합수거해주는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든 수출 선적분에 대하여 수집에서 수백개의 원산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 그러나, EU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놓칠 수도 없는 시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업자 협회 (VASEP) Nguyen Thi Thu Sac 부회장은, 정부가 EU와의 절충을 통하여, IUU규정은 90cbm 이상의 적재고를 가진 선박에 먼저 적용하고,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IUU규정의 적용을 연기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VietNamNet, VASEP 종합)

- 한편, 베트남 통계청은 10월 수산물 수출이 U\$ 4.5억을 기록 전월 대비 금액이 5.6% 증가하였으며, 2009년 1-10월 누적금액이 U\$ 34.9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 VietNamNet)

1.3. 필리핀

- 3개의 태풍 (9월 Ketsana, 10월 Parma, 10월-11월 Mirinae) 이 휩쓸고 지나간 필리핀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수산 및 수산양식 자원국 (BFAR)의 Gild Adora 부국장은 올해 수산분야가 5%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 농림부가 추정 총피해액 U\$ 2.4억, 쌀 추정생산손실이 478,000톤 등을 발표하며, 식량 수급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BFAR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충분했던 수산업자들은 약 U\$ 4.5백만의 추정 생산손실 및 U\$ 6백만의 시설손실만을 입었다고 밝혔다.
- Adora 부국장에 따르면, 수산업자들은 태풍에 대비해 조기수확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했고, 양식장에서 “탈출”한 다량의 물고기도 재포획하여, 실제 손실은 약 6,000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BFAR는, 현재로서는 2009년말까지의 수산물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2010년 상반기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태풍으로 인해 치어 등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치어 보급을 위해서 BFAR는 U\$ 85만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Business Mirror, Malaya 종합)

1.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수산부 Junaidi Che Ayub 장관은,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 FAO / Infofish가 공동개최한 유기농 수산양식 생산 및 제품 워크숍에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수산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수산양식업의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Che Ayub 장관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가 ASEAN내 선도적인 유기농 수산물 및 새우 수출국이 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의 일환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수산양식업자들이 유기농인증을 위해 태국 소재의 유기농 수산양식업 인증센터 (OAPC) 에 신청해야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특히, 동 프로그램은, 유기농으로 양식함에도 이를 인증해주는 OAPC의 원거리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야채와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개척 분야인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민, 사료업자, 가공업자, 바이어, 정부 모두가 협심하여 말레이시아 유기농 수산양식업을 부흥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Bernama)

1.5.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수산양식협회 (MAI) 는, Yogyakarta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우 수입 결정을 비난하며,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우 원료의 부족으로 수출주문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Indonesia 수산협회 및 가공업자들의 호소로, 부족한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금지를 해제하였었다.
- 이에 대해, MAI는 인도네시아의 새우 생산량은 2008년의 300,000톤에서 2009년에는 400,000톤으로 증가 되었으며, 수출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물량부족은 과도한

저가경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새우 원료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양식업자들을 압박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질병의 도입 및 잔류화학물질 등으로 인도네시아 새우의 위상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수산양식업자들은, 정부가 새우 수입과 같은 “논란많은 정책”보다는, 새우 수출이 유망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유망업종 지정 등을 통하여 은행대출의 원활화 등으로 새우양식장의 확대를 지원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른 소식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벨기에에서 개최된 Europe-Indonesia Business Dialogue (EIBD)를 통해, EU의 관세장벽, 특히 인도네시아의 참치에 대한 관세에, 대하여 조정대화를 가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2008년에 자국 수출량의 10%인 참치 12,879톤, U\$ 3.5천만을 EU에 수출하였지만, 높은 관세장벽 (신선 14.5%, 통조림 24%) 및 3일의 검역기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EU의 주요 참치 공급국인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ACP) 국가들은 0%의 관세에, 검역기간도 1일이다. EU는 2008년에 396,400톤의 통조림 참치를 수입했다.

(출처: Jakarta Post)

2. 국가별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관련 동향

2.1. 싱가포르

- 세계 최고의 관상어 수출국을 자부하는 싱가포르는, 얼마 전 유럽으로부터 유전자변형 (GM) 관상어 수출 의혹을 받아 잠시 긴장을 하였다.
- 싱가포르는 AVA 산하에 관상어를 관리하는 부서인 Aquaculture Services Centre (ASC)를 두어, 싱가포르의 유일한 수산물 수출품인 관상어산업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FAO 자료에서도 매년 20%를 상회하는 점유율로, 관상어 수출 1위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새로운 GM 의혹이 짙은 관상어가 발견되었으며, 그 출처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지목되면서 싱가포르 당국을 긴장시켰다.
- 영국 및 아일랜드의 환경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GM 의혹 관상어는, 분홍빛의 Zebra danio (학명 Danio rerio), 분홍-주황빛의 Glowlight danio (학명 Danio choprae/choprai)와는 다른, 붉은 빛의 Red danio로 수족관 특수조명인 black light 혹은 actinic를 켜면 빨갱게 형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진화에 나선 싱가포르 AVA는 재빠르게, AVA는 GM 어류의 수출을 승인한 경우가 없으며, 싱가포르에서는 GM 어류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AVA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진화에 나섰다.

- 한편, 인도네시아 Sulawesi 섬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싱가포르-독일 과학자들은, 관상어로 유명한 8개의 Caridina 새우종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공동 발견 초기내용은 The Raffles Bulletin of Zoology, Vol. 57 (2009)에 수록이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Practical Fishkeeping 12월호에 수록될 예정이다.



(출처: AVA, DEFRA, Practical Fishkeeping 종합)

2.2. 말레이시아

- 세계 Halal 표준의 허브국가가 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야심에 대만이 동조하고 나섰다. 대만의 Sea Party International (SPI) 사는 말레이시아의 Tanjung Manis Halal Hub에 총 U\$ 6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SPI사는 1단계 투자로, U\$ 9백만을 들여 Tanjung Manis에 연구개발센타를 건립하였고, 현재 U\$ 9.5천만의 예산을 들여 수산양식장을 건립 중에 있다. 동 수산양식장에서는 온대어종 이외에 chlorella 그리고 halal의 collagen 및 gelatine이 생산될 예정이다
- 연구개발센타의 준공식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수석장관 Tan Sri Taib Mahmud 및 SPI사 Ray Lin 사장은, 동 사업이 대만 수산업자 및 수산양식업자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만 해양대학교 및 대만국립과학기술대 연구진의 협조를 받고있는 산-학-관의 협력성공사례라고 자축하였다.
- Lin 사장은, 향후 2단계 사업에서는 유기농 새우양식 및 현지인에 대한 vendor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질의 halal 식품 생산을 지원하게 되며, 말레이시아 농산 및 수산양식업의 잠재력과 대만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양질의 halal 제품 중심지로서 튼튼한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Bernama)

- 말레이시아는 11월 3-6일에 걸쳐 Kuala Lumpur에서 World Aquaculture Society (세계양식학회)의 지원을 받은 Asia Pacific Aquaculture 2009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동 세미나에서는 게, 랍스터, 새우, 온대어종 등과 관련된 수산양식 기술, 수산양식 사료, 수산양식 위생, 해조류 등에 대한 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

(출처: AquaAsiaPac.com)

2.3. 필리핀

- 필리핀의 14개 어민협회 연합체인 Kilusang Mangingisda (KM)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과 EU의 FTA 협상이, 필리핀의 수산업 나아가 ASEAN의 수산업에 불리하다며 필리핀 정부에 협상거부를 종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을 대표하는 수산 및 수산양식 자원국 (BFAR)가 농림부 (DA)의 산하기관으로 조직이 되어있어, 농민들의 의견에 묻힐 수 밖에 없다며, 별도의 수산부를 구성해달라고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BFAR의 중부 Luzon지역 기술고문인 Billy Santos는, DA에서 실시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농민 위주로 되어있어, 필리핀 어민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KM의 Bonifacio Federizo 의장은, EU와의 FTA가 체결이 되면, EU의 어선들이 필리핀 및 ASEAN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Federizo의장은, EU가 요구하는 수산업 투자 자유화는, 현재의 Japan-Philippi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PEPA)를 의식한 것으로, EU가 ASEAN지역의 회유성 어종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EU는 ASEAN과의 FTA 요구조건들을 ACP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기정사실인 양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Business Mirror, PNA 종합)

2.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활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지난 10월 내각 입법으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구역 (EEZ)에서 불법 어선 발견시 즉각 발포하여 침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Freddy Numberi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약 58백만톤의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6백만톤의 수산물이 수확되고 있지만, 불법 어로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어민들이 수확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하여 해마다 약 U\$ 32억의 추정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해양자원 및 수산감독국의 Aji Sularso 국장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적발되는 불법 어선은 매해 1,000여척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순위로는 베트남,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어선들은 위조서류, 인도네시아 국기 게양 등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 어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도선 부족으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적발된 어선을 나포하여 해당국에 인계하는 미약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Numberi 장관은, 불법 어선 적발과 인계, 그리고 해당국에의 처벌 및 강제폐기 또는 경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발된 어선이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에 비추어 기존의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회의 제4위원회로부터 유사한 보고를 경청한 내각은, 해양수산부 및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불법 어선 적발시, 선원을 하선시킨 후 현장에서 불법 어선을 불태우거나 침몰시킬 수 있는 권한의 법률을 내각입법으로 통과 시켰다.
-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무조건적으로 어선을 침몰시키는 것은 아니며, 지도선 또는 군함의 함장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불법 어선의 나포 및 예인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 어로활동을 펼치려는 선장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출처: PNA, Antarra, Jakarta Globe 종합)

2.5 베트남

- 베트남 수산협회는 해안에 위치한 Kien Giang성의 Sao Bien Seafood사가 한국으로부터 ca noc (복어)의 수출제의를 받았으며, 연간 약 U\$ 1천만의 신규 수출 상품 개척을 위해 중앙정부의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 Kien Giang성 농업부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37,000톤의 복어 수산자원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에 약 4,000톤, U\$ 3-5백만의 수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법령 681호는 베트남 내에서의 복어의 가공, 교역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Kien Giang성 농업부는, 복어의 수출에 관심을 표명한 Sao Bien 및 Mai Sao 2개사가 복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법을 개정하여 허가를 내준다면, 새로운 수출상품의 개발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출처 : VNN, SGTT 종합)

2.6 아세안

- UN FAO 산하의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 in Asia-Pacific (NACA, 태국 방콕 소재) 는 10월 30일, 2009년 2/4분기 Aquatic Animal Disease Report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 Koi herpesvirus (West Java, Kalimantan, Sumatra지역), Grouper iridoviral disease (Lampung 지역), 새우 Taura Syndrome Virus , White Spot Syndrome Virus 및 Infectious Myonecrosis Virus (East Java, Sulawesi, Bali 지역) 등 발생, 말레이시아 새우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발생 및 전량폐기, 필리핀 grouper iridovirus (Quezon지역), 새우 및 게 WSSV (Zambales, Quezon지역) 등 발생, 태국 Koi herpesvirus 1건 발생 및 폐기처리, 베트남 새우 WSSV 및 Baculovirus, 랍스터 유사-Rickettsia 등 발생 등이다.

3. 국가별 한국산 수산물 수입 동향

3.1 싱가포르의 한국산 수산물 수입 동향

- 2009년 9월의 대 싱가포르 수산물 수출물량은 90.8톤, 금액은 U\$ 24만 1천불로 전월대비 물량은 2.3% 증가, 금액은 66.7%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22.4% 증가, 금액은 18.9%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 그러나, 상어 (302% 증가), 활어 (77% 증가), 냉동 기타어류 (215% 증가), 피조개 (98% 증가), 홍합 (687% 증가), 문어 (206% 증가), 소라 (188% 증가), 김 (43% 증가) 등 다양한 제품이 증가했다는 점에 미루어, 수요가 고급어종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된다.

(단위:톤, U\$천불)

싱가포르 한국산수입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09년 10월		전월대비(%)		전년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75	298	89	726	91	241	2.3	-66.7	22.4	-18.9
어류전체	1.1	31	48	396	72	67	51.2	-83.2	6,387	112.4
상어(지느러미)	0.2	15	-	-	-	-	-	-	-100	-100
삼 치	-	-	-	-	-	-	-	-	-	-
멸 치	-	-	3	14	-	-	-100	-100	-	-
넙 치	0.3	3.9	0.4	6	0.3	5	-20.0	-14.2	12.3	35.7
고등어(염장)	-	-	0.06	0.4	-	-	-100	-100	-	-
참 치	-	-	0.07	0.4	0.06	0.4	-5.9	10	-	-
생선묵	-	-	1.6	8	2.2	3.2	38.6	-60.2	-	-
기타활어	0.5	11.8	0.09	1.8	0.2	3.2	102.1	76.9	-55.6	-70.3
계	1.9	51	3.8	84.6	4.2	89	10.0	5.2	124.1	74.1
굴	9	111	13	182	-	-	-100	-100	-100	-100
김	7.6	38	22	56.9	13.8	81.8	-37.6	43.1	80.7	113.7

(출처 : <http://www.kati.net>)

3.2. 필리핀

- 한국의 대 필리핀 2009년 10월 수출은 물량으로는 1,206톤, 금액으로는 U\$ 95만을 기록하여, 전월 대비 물량 91%, 금액 21%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는 9월의 부진을 만회하는 조정형국에 불과하였다.
- 경제부진으로 필리핀의 전체 수입량이 줄어들었으며, 3개 태풍의 피해로 필리핀 정부가 쌀 등의 주요곡식의 수급에 신경과 예산을 할애해야하는 형편에 따라 당분간은 큰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조제 고등어 (397% 증가), 꽂치

(99% 증가), 생선페이스트 (9,940% 증가), 골뱅이 (887% 증가) 등이 커다란 증가폭을 보였다.

3.3.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2009년 10월 한국 수산물 수입은 물량으로는 224톤, 금액으로는 U\$ 48만3천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물량은 22%, 금액은 34% 감소하는 하였으며, 이는 앞선 9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 고등어 (1,068% 증가), 삼치 (42% 증가), 연체동물 (533% 증가), 굴 (284% 증가) 등 다양한 제품의 증가세 유지는, 한국제품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3.4. 베트남

- 베트남의 한국 수산물 수입은 2009년 10월에 물량 1,461톤, 금액 U\$ 135만을 기록하여, 9월에 이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38%, 금액은 52%의 감소를 기록하여 경기불황을 반영하였다.
- EU와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가공물량인 황다랑어 물량이 872% 증가 하였으며, 그 외 생선묵 (160% 증가) 대구 (5,024% 증가), 김 (164% 증가), 미역 (134% 증가) 등 다른 상품류가 증가되는 좋은 현상을 보였다.

3.5. 태국

- 2009년 10월의 대 태국 수산물 수출은 물량으로는 8,075톤, 금액으로는 U\$ 667만을 기록하여, 전월 대비 각기 물량 72.4% 및 금액 20.5%의 증가를 보여, 전세계의 재해에 대비하는 식량수출 1위국의 면모를 보였다.
- 부진을 보이던 통조림 등의 가공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참치는 104%, 고등어는 36% 증가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갑각류는 1,577%, 오징어는 902%, 김은

110%, 해초류는 189% 등이 증가 되었다.

3.6.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2009년 10월 한국 수산물 수입은 물량으로는 1,213톤, 금액으로는 U\$ 96만을 기록하여, 전월 대비 각각 물량 9.1% 및 금액 7.2%의 감소를 보였다.
- 지난 9월 한국산 수산물 수출급증의 조정이 예상되기는 하였지만, 고등어 (9,415% 증가), 생선묵 (57% 증가) 등의 분전으로 생각보다 감소가 적었다.

부록 I

(2009. 12. 03.)

< FTA 소식 >

I-1. 중국-ASEAN FTA

- 중국은 2010년 1월 발효되는 China-ASEAN FTA (CAFTA)를 앞두고, 이미 서명된 물품 및 서비스 협약에 이어, 태국에서 개최된 12차 ASEAN+3 총회에서 투자보호 협정에 서명하면서, CAFTA 정식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중국과 ASEAN은 지난 2002년 11월에 종합경제협력협약에 서명하면서, CAFTA가 10년 이내에 서명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에는 Early Harvest Plan (EHP)를 협정하여, FTA의 사전 작업으로 500여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시켰다. 2004년 11월에는 물품교역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일련의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에는 7,00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 인구 19억의 시장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 CAFTA를 통해, 중국-ASEAN간의 교역규모는 2004년에 U\$ 1,000억, 2005년에 1,300억, 2007년에 2,000억, 2008년에는 2,300억 등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중국과 ASEAN은 서로의 4위 교역대상국이다.
- 내년 CA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20-24일에 걸쳐 Nanning에서 China-ASEAN Expo를 개최하여 ASEAN의 고위관료 및 재력가들을 초빙하여 ASEAN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동 Expo에서는, China-ASEAN 농업협력회의, China-ASEAN 사업 및 투자회의, China-ASEAN 관세-무역 협력회의 등도 개최가 되었다.
- 또한, CAFTA 내에서는,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중교환에 따른 불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renminbi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renminbi의 지역내 기축통

화로의 발돋움을 명문화 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는 China-ASEAN FTA가 협상과 서명, 그리고 발효라는 모든 절차들을 완벽하게 위반한 협약이라며 불쾌해했다. 중국과 ASEAN은 2002년에 경제협력협약을 맺으면서 준비되지도 않은 FTA의 2010년 발효를 약속하였으며, 2004년에는 EHP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으로 ASEAN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또한, FTA 협상의 속도, 그리고 ASEAN 각국이 FTA협상에서 자국의 “특수제품”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중국과 ASEAN이 각자의 이익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일 뿐 진정한 FTA는 아니라고 비난한다.
- 한편, 베트남의 HSBC은행은 중국의 Bank of Communications과 renminbi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11월 12일 첫 송금거래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HSBC-베트남은 향후 송금거래 이외에도 renminbi 예금, 선적서류 매입, 선물환거래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HSBC-베트남은 결제통화로 중국의 renminbi가 추가되면서 베트남 및 중국 기업들의 환율변동 위험요소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China Daily, China Post, ASEAN Free Trade Area, Asia Times, Asianews.net, Taipei Times, Beijing Review, Xinhua, Global Times, Vietnam Business News종합)

I-2. East Asia Free Trade Area

- 태국에서 개최된 ASEAN+3 확대정상회의 (2009년 10월 23-25일)에서 그 동안 밀물 로비가 전개되던 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가 다시 화제로 제시가 되었다.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는 ASEAN 국가 및 +3 (중국, 일본, 한국)의 정상 이외에, 특별히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 중국이 제안하고, 태국이 지지하는, EFTA는, 현재의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를 참가시켜 거대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현재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위해서 미국 및 유럽에 의존하는 구조,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에 반해, 일본 및 호주 총리 등은 지역 내의 결속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APEC의 강화 또는 재구성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태국의 Abhisit총리는, 참석한 모든 국가정상들이 호주 및 일본 총리의 연설에 주의를 기울인 관심을 보였지만, 성급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고정된 구조에 대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서양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강화와 지역내 교역확대가 우선적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는 12월에 호주에서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11월 12-14일)에서, 미국의 Obama대통령이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협력체는 곤란하다고 발언하자, 싱가포르의 Lee Hsieng Loong 총리는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FTA를 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화답하였다. Lee 총리는 APEC 21개 회원국이 세계무역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APEC의 결속은 전세계의 경제발전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해준다고 덧붙였다.

(The Nation, Associated Press, Daily Inquirer, AFP, Channel News Asia 종합)

I-3 India-ASEAN FTA

- 2001년 협상개시가 되었지만, 2006년의 목표연도를 3년여 넘기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인도-아세안 FTA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인도-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되어, 10월 24일 태국에서 개최된 인도-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의회/국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 인도내 농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서방국에 대한 대안으로, "Look East Policy"를 표방하며, 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등과의 FTA를 추진하였던 인도의 Mamohan Singh 총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체결은 US\$ 1.1조의 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면 축제의 분위기이다.
- 인도 정부는, 섬유분야 81개 품목, 자동차분야 50개 품목, 화학분야 17개 품목 이

외에, 농어민들의 반대를 의식하여 농수산물분야에서 야자수, 천연고무, jaggery, tapioca, vanilla, turmeric, cardamon, cashew,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guava, 천연꿀, 수산물 등 303개 품목, 총 489개 품목에 대한 “민감품목”지정 양해를 도출해, FTA 사상 최다의 “민감품목”지정으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 인도 상공부 P.K. Dash 장관은 인도-아세안 FTA의 체결로, 인도-아세안간 교역량은 2009년의 추정 U\$ 270억에서, 2010년에는 U\$ 5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도가 협상에 성공한 489개 품목의 “민감품목”지정은, 아세안이 8자리 관세분류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97개 품목이 된다고 인도의 농어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 인도-아세안 FTA의 남은 과제는, FTA의 의회 인준 이외에,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공식인정하여 양국간의 교역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부는 베트남의 “시장경제” 인정 안건도 의회에 상정을 하였다.

(출처 : PTI, Bernama, The Hindu Business Line, Global Politician, DNA, Central Chronicle,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종합)

< 부록 2 >

< 업계 단신 >

II-1. 필리핀의 red algae (紅藻)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 지난 7월에 한국 Biolsystems (대표 김경수) 및 필리핀 Bohol주의 Erico Aumentado 주지사는 red algae (적조, 학명 : Eucheuma cottonii)로부터 추출된 에타놀을 이용한 대체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MOU에 서명하였었다.

- MOU에 따라, 3 ha의 시험장, 500 ha의 종묘장, 25,000 - 100,000 ha의 양식장 부지를 50년 (그리고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25년) 무상임대 받은 Biolsystems는, 현재 100 ha의 부지에 숙소 및 공장 건설 중이다.
- 총 약 U\$ 1억이 투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Biolsystems의 김경수 대표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며, 3명의 연구원과 함께 Bohol주에서의 red algae 양식 적합 부지를 조사 중에 있다.
- 약 300여명의 상주인력을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Aumentado 주지사는 향후 동 지역을 특수경제구역 (SEZ) 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설의 안전을 위해 주 경찰 및 군대 등이 경계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Bohol Standard)

II-2. 새우 음식 쓰레기로 폐수를 정화할 수가 있어

- 브라질의 South Santa Catarina 대학 연구진은, 먹은 후 쓰레기로 버려지는 새우

머리 및 껍질 속에 산업폐수를 정화해주는 다량의 효소들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연구진에 따르면, 새우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며 섭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새우 머리 및 껍질 속에는 다량의 산화 효소 및 lipases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생활 및 산업 폐수 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한 화학제의 대체물질 및 독성물질의 흡수제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 연구진의 Jair Juarez 수석연구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생활 및 산업폐수 처리제들은 고비용과 저효율, 그리고 처리하려는 물질에 비해 더욱 유해한 부산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Juarez 연구원은 새우쓰레기의 성능 발견에 따라, 향후 다양한 환경오염을 제거해주는 생물학적 필터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 Ciencia Hoje)

II-3. Omega-3 에멀전 첨가로 기능성 음료의 변질을 막을 수 있어

- 네덜란드의 Lipid Nutrition사는 자사에서 새로 개발한 고농도 omega-3 에멀전을 이용하여 낙농 및 음료 생산자들이 맛의 변화 또는 변질의 우려 없이 long-chain omega-3 지방산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Lipid Nutrition사의 John Kurstjens 국제마케팅과장에 따르면, 신규 개발된 Marinol Omega-3 에멀전의 전체 omega-3 함량은 187mg/gram (22%), EPA 및 DHA 함량은 153mg/gram (19%) 의 고농축액으로 낙농 및 음료 업체들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음료의 최적 EPA 및 DHA 함량을 유지할 수가 있어 매우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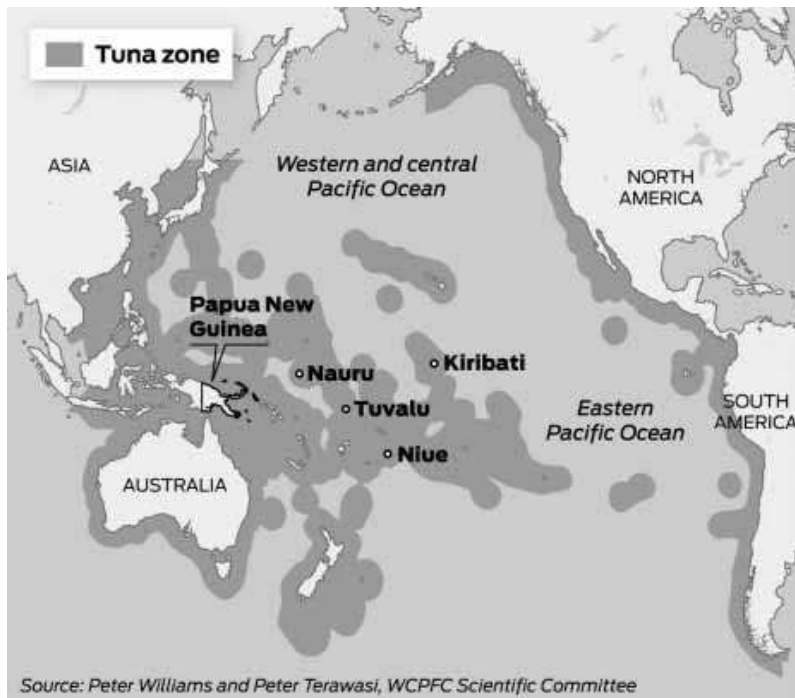


- 수산어종 고갈의 세계적 우려와 관련하여, Kurstjens과장은, 회사의 Marinol Omega-3 제품은 남미연안에서 어획이 되는 멸치 (595-99%), 정어리 (1-5%), 고등어, 꽁치 등을 원료로 하지만, 어분(魚粉)산업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산 자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유럽의 Frost & Sullivan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mega-3 원료시장은 연평균 24.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유망 시장으로, 2014년에는 U\$ 16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 현재 특허출원 중인 동 제품과 관련하여, Lipid Nutrition의 van Wanroij 개발과장은, Marinol Omega-3 제품을 사용하면 우유제품의 경우 보관기간이 4개월 정도 연장되며, 제과제빵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프랑크프루트에서 개최된 Food Ingredients Europe 전시회 (11월 17-19일)에서 출품 되었다.

(출처: NutraIngredients.com)

II-4. 세계 참치 추세

- 11월 15일 폐막된 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 대서양 참치보존 국제위원회) 21차 총회는, 참가 48개국은 bluefin tuna (참다랑어)의 2010년 쿼타 40% 감축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가 주도한 협상에서, ICCAT는 2010년 건착망 어선의 출어기간을 총 1개월로 제한하고, 동부대서양 및 지중해지역에서의 참치어획 쿼타를 2009년의 22,000톤에서 2010년에는 13,500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세계 참치 어획량 60%의 생산지인 서부 및 중부 태평양 어업 위원회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WCPFC)는, 동 지역의 주요 원양선단국인 일본, 미국, 한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동 지역을 영해로하는 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나우루,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 마셜제도, 키리바티, 투발루) 8개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동 지역에서 어획되는 4대 참치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가다랑어 등의 전체 어획량을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었다.



- 지구표면의 20%에 해당하는 영해에 대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부 및 중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해에서 생산되는 추정 US\$ 40억의 어획고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며, 조업허가제, 집어장치 사용금지, 조업활동 감독을 위한 자국민의 승선 등을 주장하였으며, 불법어로활동의 근절을 위해 EU에 호소하여, EU는 2010년 1월부터 철저하게 IUU 규정을 적용,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EU 역내의 입항금지로 화답하였다.
- 참치의 멸종을 경고하던 Greenpeace 등의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이제 세계 5대 참치위원회 중,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 및 참여하고 있는 EU, 일본, 호주,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27개 회원국들의 참여한 이해 대립으로 유명무실해진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인도양 참치 위원회), 호주 및 일본이 80%의 쿼타를 과점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일본이 어획량을 허위보고 하며 참치남획을 하였다는 호주정부의 조사보고내용을 시인한 신임 Hatoyama 정부의 양보로 이미 강력한 쿼타제를 실시하고 있는 CCSBT (Commission of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미주지역 참치 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출처 : AFP, Brietbart, San Francisco Chronicle, ABC, Reuters, The Guardian, Jakarta Post 종합)